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불가피

광주 서구, 여수, 영광·함평, 강진·완도 인구 하한선 무너져 (31만5천명·10만5천명)

인구 늘어난 광주 광산 국회의원 2명으로 늘듯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정개특위를 6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속속 무너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의 인구 상하한선(10만5천~31만5천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적어도 2명의 국회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인구는 30만9천851명으로 2인 선거구 기준인 31만5천명선이 무

너졌다. 지난 17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명의 국회의원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서구는 동구에 비해 구간 경계 조정이 이뤄질 별다른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17대 총선 인구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회의원 1인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반해 광산구는 5월말 현재 인구가 31만4천374명으로 2인 선거구 기준선인 31만5천명에 근접해 있다. 정개특위에서 구성할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인구 기준을 2007년 말 현재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광산구에서는 국회의원 2명이 선출

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국회의원 총수는 서구에서 1명이 줄어든다고 해도 광산구에서 1명이 증원되면서 국회의원 정수 7명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지역도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통폐합되거나 2인 선거구가 1인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현재 2인 선거구인 여수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30만명선이 붕괴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 5월 말 현재 29만5천900여명에 불과하다. 1인 선거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또한, 1인 선거구인 영광(6만269명)·함평(3만8천956명) 선거구의 인구도 9만9천225명에 불과, 단일 선거

구 인구 하한선인 10만5천명에 미달하고 있다. 여기에 강진(4만2천109명)과 완도(5만7천689명) 선거구의 인구 합계도 9만9천898명에 불과, 17대 총선 인구 기준으로는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 2명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하한선이 줄어든다고 해도 올해 구성되는 선거구 확정 위원회에서 인구 감소 요인을 감안, 선거구 인구 기준을 다시 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전남지역 선거구는 인구 기준으로 다시 조정되면서 지역구의 지형도는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1일 현지 북핵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한 뒤 리군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힐 전격 방북 '2·13 이행' 논의

김계관 등 만나... 北美관계 정상화 중대 전기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1일 현지 북핵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낮 평양에 도착,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잃어버린 시간을 메울 것을 희망한다”며 “이번에 좋은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오산기지를

떠나 오후 평양에 도착했으며 1박2일 일정을 마친 뒤 22일 오전 오산기지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힐 차관보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겸 6자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것”이라며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방문이며 김 부상과 만나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힐 차관보는 북한에서 6자회담 카운터파트인 김부상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을 만나 2·13 합의 이행 문제,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의 진로를 막아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이뤄진 힐 차관보의 전격 방북은 북핵 2·13 합의 이행과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헌법소원 강행

헌정사상 처음... 한나라·범여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중앙선거위원회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정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

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최근 발언 등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한 선거중립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천 대변인은 “선거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치활동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권력의 최고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 천 대변인은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적 헌법기관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선거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 해당성 여부와 관련, “선거위 조치는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해 선거법 9조 위반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장래 발언행위의 자제를 요청” 또는 “제촉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법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범여권도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번 헌소를 계기로 대통령의 정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법률적 논란이 분명히 정리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입동욱기자 tuim@

금호타이어 임단협 잠정 합의

기아차 광주공장 '정치파업' 영향 미칠듯

기아차 광주공장과 함께 파업이 예정됐던 금호타이어 노사가 21일 '고용보장·경쟁력향상·노사공동발전을 위한 특별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잠정합의는 금속노조의 '정치 파업' 지침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기아차 광주공장의 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9~20일 이틀간 진행된 교섭에서 ▲기본급 4%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70만~100만원 ▲2007년 성과급 최저보장액 250% 인정 ▲충고용 유지 등에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2~23일 조합원 설명회를 연 뒤 오는 26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1일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자부장관 등 3부 장관 공동명의로 답화문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이 한미 FTA 체결지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30여개 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기업사랑협의회는 21일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파업 등 극단적인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넌센스 CRACKER

'넌센스' 티켓 발매중!!

2007.6.30~7.1/광주문화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매일, 속눈썹 퍼머한 듯

라네즈 하이뎀 컬링 마스크라
Curling for Asian Eyelashes.

혁신적인 디스크형 라비브러시가 놀라운 밀착력으로 권말한 후, 파스텔리마가 속눈썹 퍼머한 듯 파워 세팅, 동시에 연출해주는 마스크라. 아시아 여자들의 팔로 쉽게 차지하는 속눈썹 고민으로부터 탄생.

make up stand

LANEIGE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laneige.co.kr